

1. 오늘 복음말씀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을 고르세요.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 ① 갈릴래아 호수      ② 베타니아
- ③ 타보르산          ④ 광야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나요?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분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분은 무엇일까요?

- ① 천사                  ② 권세
- ③ 성령                  ④ 권능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신부님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내고 있는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 예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처럼  
방학을 기다리는 학생이 되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글을 통해 멀리서나마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요.

예전에 신부님이 있던 성당에는 미사가 끝나도 꼭 남아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어요. 친구들 생각에는 왜 남아계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늦게까지 남아계셨던 이유는!!  
다른 분들이 성당에 남기고 간 주보, 휴지, 쓰레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가 남기고 간 무엇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늦게까지  
붙잡았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지 눈치 챘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주보나 휴지나 쓰레기를 남기고 갔다면, 아마 제자들은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치우느라 바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랑'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사랑'을  
많이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성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랑이기를 멀리서나마  
신부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승천 대축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 48)




박오영칼라만스

성당

학년

이름

서명


1독서  **여행**


✠ 사도 행전의 시작입니다. 1,1-11

<sup>1</sup>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sup>2</sup>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sup>3</sup>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sup>4</sup>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sup>5</sup>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sup>6</sup>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sup>7</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sup>8</sup>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sup>9</sup>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sup>10</sup>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sup>11</sup>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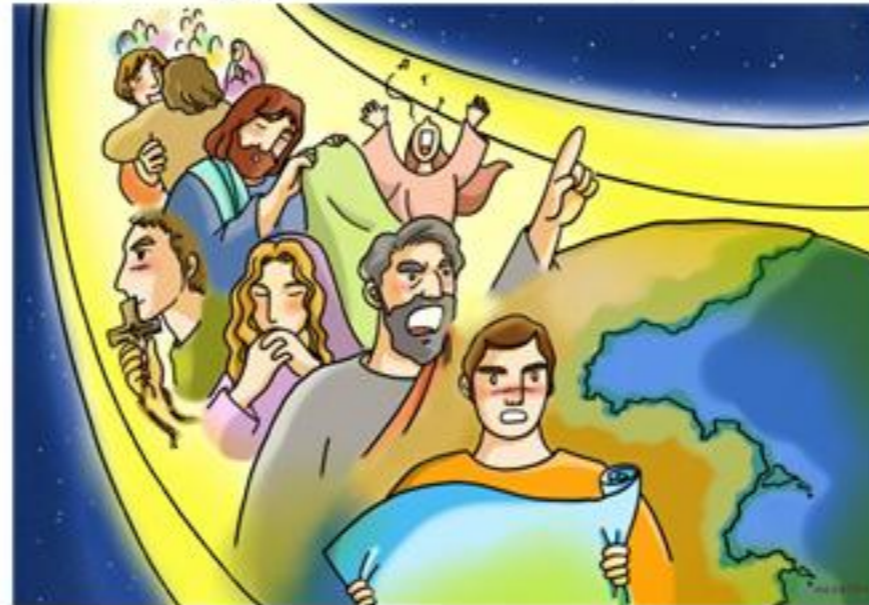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형제 여러분, <sup>17</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sup>18</sup>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sup>19</sup>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sup>20</sup>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sup>21</sup>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sup>22</sup>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sup>23</sup>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sup>46</sup>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sup>47</sup>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sup>48</sup>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sup>49</sup>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sup>50</sup>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sup>51</sup>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sup>52</sup>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sup>53</sup>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